

GLOBAL TREND

세계지방자치동향

미국

- ▶ 뉴욕 청소년 정신건강 안전망 B-HEARD 프로그램

미국

- ▶ 미국 펜실베니아 주 청년 정신건강 지원사업

일본

- ▶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과 시사점

프랑스

- ▶ 청년 자립도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: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청년 지원 사례

한국

- ▶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청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현황

한국

- ▶ 고립·은둔 청년지원정책: 서울형 고립 은둔 청년지원 5대 혁신 사례



뉴욕 청소년 정신건강 안전망 B-HEARD 프로그램

정책 배경 및 중요성

-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
- 미국 CDC(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에 따르면, 미국 청년층의 약 25%가 우울증을 경험하였고, 자살은 15-24세 청년 사망 원인 중 2위로 나타남(CDC, 2022)¹⁾
- 2021년 기준, 뉴욕시의 3세에서 13세 아동 중 20%가 정신적, 감정적, 발달적 또는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, 이 중 일부는 불안 장애로 진단받음²⁾
- 또한, 2021년 고등학생의 38%가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, 부모의 28%가 자녀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함³⁾
- 미국 전역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이 주로 경찰에 의해 이루어졌고, 이는 종종 불필요한 폭력 사태나 위기 악화로 이어지는 등 공공안전과 정신 건강 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
- 2021년 뉴욕시 정신건강 필요 평가⁴⁾에 따르면, 정신건강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68%가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병원 이송보다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
- 정신건강 문제를 공공 안전이 아닌 공중 보건의 문제로 인식하고,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

B-HEARD 프로그램의 개요 및 역할

- B-HEARD(Behavioral Health Emergency Assistance Response Division) 프로그램은 2021년 6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뉴욕시 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⁵⁾
- FY 2025 기준, NYC Health + Hospitals와 FDNY(Fire Department of New York)에 할당된 예산은 총 3,510만 달러임⁶⁾

1) CDC (2024) <https://www.cdc.gov/yrbs/index.html>

2) <https://www.nyc.gov/assets/doh/downloads/pdf/mh/care-community-action-mental-health-plan.pdf>

3) <https://www.nyc.gov/assets/doh/downloads/pdf/mh/care-community-action-mental-health-plan.pdf>

4) Behavioral Health Emergency Assistance Response Division (B-HEARD) (2024) <https://mentalhealth.cityofnewyork.us/program/b-heard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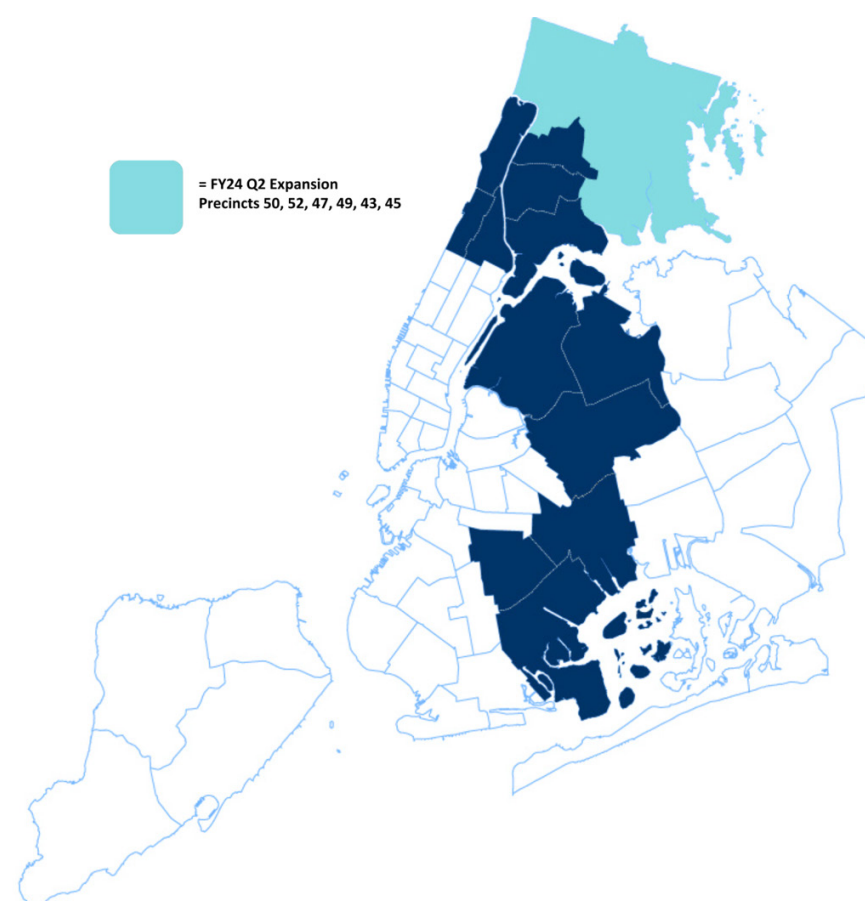
5) Re-imagining New York City's mental health emergency response (2024) <https://mentalhealth.cityofnewyork.us/b-heard>

6) Budget and funding concerns for B-HEARD program (2024) <https://citymeetings.nyc/city-council/2024-09-23-1000-am-committee-on-mental-health-disabilities-and-addiction/chapter/budget-and-funding-concerns-for-b-heard-program>

- EMT/구급대원과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911 정신건강 호출에 대응하며, 자살 충동, 약물 남용, 심각한 정신 질환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평가와 지원을 제공함
- 초기 대응에서 병원 이송 대신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여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함
- 주 7일, 하루 16시간 동안 운영되며,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나 지원으로 연결함

사례 성과 및 향후 목표

- B-HEARD 시범사업은 2021년 11월 이스트 할렘에서 시작해, 2022년과 2023년 동안 워싱턴 하이츠, 사우스 브롱크스, 이스트 뉴욕, 브라운스빌, 퀸즈 일부 및 브루클린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었으며, 2023년 10월에는 브롱크스 전체를 포괄하도록 확대 운영되고 있음⁷⁾



[그림 1. B-HEARD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 과정⁸⁾

-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파일럿 기간 동안 총 138건의 정신건강 호출에 대응하였으며, 지원 수락 비율은 95%로 전통적인 경찰 대응 방식(82%)보다 높은 호응도를 기록함⁹⁾

7) <https://www.nyc.gov/assets/doh/downloads/pdf/mh/care-community-action-mental-health-plan.pdf>

8) <https://mentalhealth.cityofnewyork.us/b-heard>

9) <https://mentalhealth.cityofnewyork.us/b-heard>

- 병원 이송 비율 또한 기존 82%에서 50%로 줄었으며, 불필요한 이송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음¹⁰⁾
-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응급 상황의 악화를 예방하고, 정신건강 전문가의 참여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함

뉴욕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정책 및 목표

- 뉴욕시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은 B-HEAR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2023년에 발표된 뉴욕시의 “Care, Community, Action: Mental Health Plan”의 일환으로,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¹¹⁾
 - 목표 1. 청소년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,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하고, 문화적으로 적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
 - 목표 2.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을 통해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, 장기적으로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
 - 목표 3.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여,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임
 - 목표 4. 청소년들이 사회적,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와 커뮤니티 내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정신건강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

10) <https://mentalhealth.cityofnewyork.us/b-heard>

11) <https://www.nyc.gov/assets/doh/downloads/pdf/mh/care-community-action-mental-health-plan.pdf>

한국 청년 사회 안전망과 관련한 시사점

- B-HEARD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대응 모델은 한국 청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
- 청년층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,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
- 법적 대응보다 정신건강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초기 대응체계와 청년층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